

'2차장마' 시작...태풍 '하이쿠이' 변동성도

"긴 기간 동안 비 내리는 '2차 장마' 시작" 9·10호 태풍 영향 미미...11호 경로 유동적 오늘 오후 수도권·내일 남부 중심 강한 비

이날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번 주 중반부터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 비가 이어지는 '2차 장마'가 시작되었다. 제9호 태풍 '사울라'와 10호 태풍 '담레이'로 인한 영향은 적겠지만,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이동경로는 변동성이 큰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상청은 28일 오전 수시 예보 브리핑에서 "태풍, 정체전선, 저기압 등 다양한 이유로 긴 기간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는 시기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특히 29일까지는 저기압 중심과 가까운 중부지방, 그리고 대기하층의 강한 바람에 의해 지형 영향이 더해지는 경북북부와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전부터 지역에 따라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으나, 오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박종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저기압이 서해상을 지나 북한 지방을 통과할 때, 영향권에 들어가는 수도권과 강원영서지방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엔 우리나라 북쪽에 있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 강수대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며 압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예보분석관은 "강수대가 강화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시설물 및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오는 30일 수요일 이후 우리나라 북쪽의 상대적으로 건조한 성질의 고기압과, 남쪽의 따뜻한 성질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형성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긴 기간 비가 이어지는 '2차 장마'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예보분석관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두 개의 기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체전선으로 인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도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여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강도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기상청은 제9호 태풍 '사울라'와 제10호 태풍 '담레이'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이날 오전 11시 발생한 제11호 태풍 '하이쿠이'의 경우 아직 경로가 유동적인 상황이다.

하이쿠이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괌 북북서쪽 약 570km 부근 해상에 있으며, 시속 14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98헥토파스칼(hPa), 중심최대풍속은 시속 65km, 강풍반경은 300km다.

아울러 기상청은 이날부터 발달한 저기압이 서해상을 통과하며 서해안과 동해중부연안바다에 풍랑특보 확대발효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내일부터 조고가 높아지는 기간인데다 저기압에 의한 해수면 상승효과가 더해지며 서해안과 남해안 중심으로 만조 시 침수 피해 가능성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기상청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을 부리던 더위는 한 풀 꺾였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돼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태풍 이동 경로 등에 따라 기온도 변동성이 큰 상황이지만, 현재 예보상으로는 전국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담양소방,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정담회 실시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최근 전남소방본부 주재 2023년 찾아가는 청렴, 소통 정담회를 실시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진도소방, 구급대원 2명 브레인세이버 인증서 수여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평가·처치·이송으로 생명 소생 및 손상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소방장 정인화, 소방사 한수현)에 대해 브레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 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화순소방,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화순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지 23일 을지연습과 연계해 민방위 훈련 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순=박승철 기자



순천경찰, 차량털이범 검거 기여한 CCTV 관제요원 감사장 수여

순천경찰서(서장 김남희)는 각종 범인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순천시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A에게 전남경찰청장(치안감 이충호) 감사장을 전수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경찰, 고령화 시대 마을회관, 노인정 찾아 범죄예방활동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 금산파출소에서는 지난 28일 오전 신금마을회관을 찾아가 교통안전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나주 경찰, 지역치안 현장 찾아나선 장진영 나주경찰서장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치안활동의 최일선인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현장 직원들과 지역경찰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나주=송준표 기자

'민식이법' 놀이로 운전자 위협... "다자로 누워 휴대폰"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운전자를 고의로 놀라게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산 호수공원 근처의 교차로 한 가운데 드러누운 아이 두 명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 '호수공원 X자 신호등 사거리' '아이들 교육 요망! 학부모 공유!'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밤 시간대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나란히 누워 휴대폰을 만지는 아이 두 명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행동은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를 놀라게 할 목적으로 보여진다.

문제의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저러다 진짜 다 치면 어떡하려는 거냐" "아이 부모는 뭐 하는 거냐"며 분노를 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해당 법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

뉴스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28일 오후 대구 동구 안심도서관에서 열린 '2023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승강기에 갇힌 이용객을 구출하고 있다.

경쟁 도박사이트 해킹·서버 장애 일으킨 40대, 2심도 실형

경쟁 도박 누리집(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해킹해 개인 정보를 빼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해킹 조직 총책인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공범들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쟁 도박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많은 데이터를 발생시켜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사이버 공격)을 하고 경쟁 도박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2월 백신을 빙자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성인 PC방의 컴퓨터 정보 통신 체계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보기술(IT) 업계에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도박 사이트 영업에 유리한 정보를 얻으려고 경쟁 도박 사이트를 해킹한 뒤 범행 규모를 확대했다.

A씨와 공범들은 해킹으로 빼낸 경쟁사의 고객 세부 정보(성별·휴대전화 번호·학력·직업·주식 투자 현황 등)를 자신들의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표시한 뒤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된 점,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점, 해킹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비 기자